

건축·음식·사진... 가을은 인문학의 계절

국립광주박물관, '세계의 건축, 삶과 공간...' 8회 강의
남도음식문화진흥회, 음식과 부엌 주제 두달간 강좌
광주시립미술관, 초상사진·다큐멘터리사진 미학 강의

아직은 한낮에도 덥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인문학과 예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국립박물관 대학

국립광주박물관은 제29기 광주박물관 대학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 주제는 '세계의 건축, 삶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 강의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10월 10일 1차시에는 제8회 대한민국 생태환경건축대상을 수상한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건축을 보는 눈'을 강의한다. 2차시(17일)에는 김개천 국민대 디자인전대학원장이 '이슬람 건축과 문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3차(24일)와 4차(31일)는 정진국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와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각각 '근대 건축의 성립과 르코브르지에의사유', '불교와 유교의 건축'을 풀어낸다. 11월 7일 5차시에는 '일본의 생활 건축 이야기'를 광주전남건축가회장이 남승진 건설문화교육연구원 원장이 강의하며 14일에는 베니스 및 시카고 비엔날레 초대작가인 문촌 건축발전소 대표가 '다른 상상, 다른 건축 그림으로 세상을 짓다'를 이야기한다.

그밖에 7차시(21일)에는 제15회 베니

스극제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공동 큐레이터였던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가 '건축가 그리고 전시' 강의를 통해 김중업, 정가용, 이타미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28일)에는 노은주 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소장이 '사람 그리고 건축-건축이 문화가 되는 날'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재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중. 선착순 250명 마감. 상반기 회원 5만원, 신규 7만원. 문의 062-570-7053, 7068.

◆부엌 속의 인문학

부엌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따뜻한 공간이다. (사)남도음식문화진흥회 주최로 '음식과 부엌'을 주제로 한 강좌 '부엌 속의 인문학'을 오는 9월3일부터 두달 동안 비움박물관과 베토벤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부엌의 관점에서 인문학을 새롭게 접근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기획됐다.

10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시, 한그릇의 밥' (나희덕 조선대교수), '미식의 세계' (광주대 박종찬교수),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 (전대유라시아연구소 조현주 박사), '세계역사를 바꾼 향신료' (푸드 앤드 트레이드 백지원 대표), '부엌속의 인문학'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대표 윤화자) '생명을 살리는 자연음식' (박승희 요리연구가), '음악이 흐르는 부엌' (베토벤 대표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이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한 김중업박물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

이정옥)이다. 특히 백지원 대표는 동명동 유명 셰프 테리킴과 함께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음식을 맛보는 쿠킹 콘서트(9월 8일)를 진행한다. 선착순 모집. 무료 강좌. 문의 010-6219-7203.

◆사진미학 강좌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사진전시관은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6강에 걸쳐 사진 미학 강좌를 개최한다. 지난해 '명 저서로 만난 사진 예술' 강좌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었던 강좌로 올해는 '사진과 인, 생'을 주제로 강의한다. '초상사진'과 '다큐멘터리 사진'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강좌다.

이번 강좌는 각 주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2주씩 연속으로 강의를 이루어지며, 강사로는 박상우(중부대학교

교수), 박평중(중앙대학교 강의교수), 이재인(전남대학교 강의교수)씨가 나서 사진예술을 인문학적 영역까지 확장시켜 나갈다.

박상우 교수는 '20세기 전반기 다큐멘터리 사진의 탄생', '2차 세계대전 이후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경향'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 강의한다. 사진평론가로 잘 알려진 박평중 교수는 '초상사진의 미학', '초상사진에서의 포즈와 연출'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일의 나치와 분단에 대한 문화적 기억 조형물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고 역사적 배경을 기술한 '사진으로 읽는 베를린'(2017)을 펴낸 이재인 교수는 '사진에 관한 인문학적 사유'를 주제로 두차례 강의를 진행한다. 무료 강의. 문의 062-613-54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윤익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현대적인 의미의 문화예술관련 지원 정책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계를 단순히 분류하면 생산자, 매개자, 소비자로 구분한다. 기존의 문화예술계 관련 지원정책은 생산자를 지원하여 문화생산 지수의 질적, 양적 수치를 높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이러한 정책은 문화예술계의 소비자를 지원하여 소비자 지수를 높여가고 이러한 소비지수의 성과들이 생산자들에게 재투자 되는, 일종의 문화생태계 순환 및 생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더욱 쉽게 설명하면 과거에는 화가, 문학가, 공연자, 연주자들에게 지원하던 기금을 문화예술계의 애호가 혹은 관람자, 참여자들에게 지원하여 그들이 문화예술을 더욱 사랑하여 향후 자발적 의도로 연주회의 티켓을 구매하고, 전시장

난해하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이 아무리 많아도 찾아오는 시민이 없다면 수준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이 없다면 찾아오는 시민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민선 7기 동안 최소 10개 미술관·박물관을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미술관, 시민생활사박물관, 민요박물관, 로보트과학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며, 화랑에서 실제 작품구매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뜻하는 것이다.

빛고를 광주는 자전타전 과거로부터 예향으로 불리며 현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대표 문화도시 혹은 문화수도 등으로 불린다. 국제적인 미술축제로 알려진 광주비엔날레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되며,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수많은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인구대비 우수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도시의 척도를 말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실태 현황을 보면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는 다소 부족함이 아쉬움이 남는다.

2015년 자료의 전국 시도 박물관 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박물관 122개와 미술관 38개, 경기도는 박물관 143개와 미술관 44개, 우리지역 광주는 박물관 10개와 미술관 7개, 전남은 박물관 46개 미술관 22개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사립 전체에 관한 수치적 개념으로 문화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언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문화예술의 기반현황을 상징적으로 언급한다.

문화예술계를 발전 시키려는 노력을 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을 증가해야 할지 아니면 시민들의 소비지수를 높여야 할지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를 논하는 상황처럼 매우

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은 문화수도를 꿈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모든 문화관련 기관은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한결같이 문화사업은 투자 사업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간접자본의 증가 효과를 생성하고 결국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향점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영화관 소소하게 거리의 공연과 평소의 독서마저도 우리의 인문학적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생태적 순환'이 실현되기 위해서 공교육은 반드시 다양한 문화기관과 협연되어야 하며, 문화기관은 바람직한 '생태적 순환'을 이루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문화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이처럼 가까운 장소에 이처럼 좋은 전시와 공연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소회한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꼈고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기관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기도록 생산성과 소비성을 동시에 높여내는 모체가 무엇인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고한 어둠 뚫고 일어서는 빛과 목소리 형상화

25년만에 '회색빛 베어지다' 펴낸 나주 출신 박선옥 시인

"해묵은 노트를 들여다보다 덮근 했던 일들을 비로소 마무리 짓는 감회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니 낡고 해진 것들을 오래 짊어지고 왔다. 반성하고 반성할 일이다. 더딘 발걸음이지만 내 앞에 놓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겠다."

25년 만에 네 번째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 있어 화제다.

1982년 실천문학 제 1호로 등단했던 나주 출신 박선옥 시인이 최근 '회색빛 베어지다' (도서출판 b)를 펴냈다.

시인은 그동안 시 외에도 동화, 평전, 해설서 등 다양한 장르에서 창작활동을 펼쳤다. 그 사이 시인의 내면에는 안젠가는 다시 시를 펴내리라는 열망이 움텄다. 이번



시집에는 25년간 써왔던 100여 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통계상 1년에 4편씩, 다시 말해 매 개월마다 1편씩 씩은 썼다는 뜻이다. 또한 작품집에는 개인과 역사, 서정과 서

사를 교차하며 세계를 아우르는 시가 다수 포함돼 있다. 나아가 세상 만물에 대한 따스한 시선, 인간에 대한 사랑, 불이나 폭력적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지도 읽힌다.

"밑동이며 줄기 새까맣게 말라가던 수양버들/ 겨우내 땅속 뿌리 어딘가 우물을 파고/ 깊은 봄 퍼 울리느라 흘린 땀방울/ 얼

음 녹을 때까지 끝에 맺혀/ 새하얀 기지개 켜고 있으니// 오늘 비로소 눈부시다/ 강가에 휘날어진 수양버들/ 가느다란 가지 끝에서 끝으로/ 서리서리 역류하는 초록 빛줄기"

표제시 '회색빛 베어지다'는 최근의 적폐 청산과 연관돼 있다. 강고한 어둠을 뚫고 일어서는 빛과 목소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문학평론가 이경철은 "시상 전개로 볼 때 부용과 연꽃과 연장선상에 있는 수양버들들 그린 이 시에서는 이렇게 역류, 반란, 혁명정신을 읽을 수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이면에는 유년의 순수함과 순정, 진솔함도 배어 있다. 그의 시가 세상을 아름답게 승화하고자 하는 의지로 전이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휘성 'ACC Song' 노랫말 입혀주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휘성' <사진>이 부를 노랫말을 공모한다. 선정된 노랫말은 휘성에게의해 완성곡으로 만들어지고 뮤직비디오에도 제작된다.

문화전당 홈페이지(acc.go.kr)와 블로그(blog.naver.com/asiaculturecenter)에서 공식 지정 음원을 내려 받아 주제를 고를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각각 6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